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신규실업수당 크게 올라...26만1천건 2021년 10월 이래 최고치
- WSJ: 미국 수입품 중 중국산 점유율, 2006년이래 최저치
- WSJ: 백악관, 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방은 폐지 가능성에 대비

[미국 금융]

- Bloomberg: 금리 인상 우려가 트레이너들 불안케... 수익률 다시 상승

[뉴욕]

- Bloomberg: 뉴욕시 산불여파 울여름에 계속된다
- CNBC: 뉴욕인근 수백편 항공 지연... 산불 탓에 시야 흐렸다
- CNN Business: 맨해튼 주거 임대료 전년 대비 10% 인상
- CNBC: 뉴욕 “외국인 생활비 가장 비싼 도시 1위”

[반도체]

- CNBC: Fitch, “미중 칩전쟁, 한국 대형 기술 기업에 타격 길지 않을 듯”

[서부 항만]

- CNBC: 미 서해안 항구에 정박한 선박 늘고 있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Google “사무실 출석 단속, 원격 근무자에 재고 요청”
- The Economist: 생성 AI, 법률 관행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 TechCrunch: LinkedIn, 광고 문구 작성을 위한 AI 도구 제공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Jobless Claims Surge to 261,000, Highest Since October 2021

미 신규실업수당 크게 올라...26만1천건 2021년 10월 이래 최고치

- 지난주에 미 신규 실업 청구건수가 지난 2021년 10월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해고 조치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 6월 3일 끝나는 주의 신청건수가 2만8천건 늘어난 26만1천건의로 집계됐다.
- 실업 수당을 1주 이상 받는 이들을 포함해 실직 후 구직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지표인 지속적인 청구 건수 1백76만건으로 올해 2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WSJ: China's Share of U.S. Goods Imports Falls to Lowest Since 2006 미국 수입품 중 중국산 점유율, 2006년 이래 최저치

- 미국인들은 4월에 해외에서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한 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는 떨어졌는데, 이는 올봄 미국 경제의 강력한 모멘텀을 신호라고 볼 수 있다는 것.
- 중국에서 수입하는 규모는 지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에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는 증가했다. 어제 수요일 상무부 발표 자료다.
- 4월에 미 기업들이 더 수입한 물품은 자동차, 셀폰, 그리고 산업 공급재. 반면에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면서 미국의 수출이 감소했다. 4월 미국 수입은 계절 조정치로 1.5%늘어난 3천2백36억달러를 기록했다.

WSJ 기사

WSJ: White House Prepares for Possibility Supreme Court Could Kill Student Loan Forgiveness Plan 백악관, 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방은 폐지 가능성에 대비

- 미 대법원은 이번달에 수백만명이 학자금 대출자들을 에게 최대 2만달러를 없애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프로그램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 지난 2월 법원의 구두 변론에서 법안 대다수의 보수주의적인 입장에 따르면 연방법에 의거한 연방 교육부 장관이 정부 재정에서 약 4천3백억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이처럼 탕감 가능성이 힘들어지는 우려 상황에서 행정부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대출 탕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수천만명의 대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 옵션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Bonds Everywhere Suffer as Rate-Hike Fears Swamp Traders 금리 인상 우려가 트레이너들 불안케... 수익률 다시 상승

- 이번 주 두 차례의 충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트레이더들이 확인한 가운데 글로벌 채권이 급락하고 있다.
- 단기 국채 수익률은 3월 이후 최고치에 근접한 반면, 호주 국채 수익률은 10년 전의 수준으로 급등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호주 중앙은행과 함께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으로 시장을 놀라게 한 후 투자자들은 다시 국채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 이같은 긴축 때문에 투자자들은 올해 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재고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 Julius Baer의 채권 리서치 책임자 Markus Allenspach는 “채권시장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당최 기대보다 느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뉴욕]

Bloomberg: New York City Could Be in for a Smoky Summer as Wildfires Rage

뉴욕시 산불여파 올여름에 계속된다

- 산불이 기승을 부리면서 뉴욕시는 연기가 자욱한 여름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 기후 변화로 인해 화재 발생이 극에 달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올 여름과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 몇 주 동안 캐나다를 불태우고 양쪽 해안을 따라 수천 명의 주민을 집에서 쫓아낸 불길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일부 지역을 가로질러 연기를 남쪽으로 퍼뜨렸습니다. 캐나다 산불 정보 시스템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436건의 산불 중 상당수가 캐나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 봄이 오기 전이나 초기에 발화했다.
- 캐나다의 대부분은 8월까지 평균 이상의 위험이 계속된다. 예측대로라면 캐나다는 9월이 되어서야 크게 완화되기 시작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등 상당 부분이 평균 이상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 한마디로 캐나다의 기록적인 온난화와 기후 변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CNBC: Hundreds of New York-area flights delayed as Canada wildfire smoke cuts visibility

뉴욕인근 수백편 항공 지연... 산불 탓에 시야 흐렸다

- 미국 연방항공청은 뉴욕, 뉴어크, 필라델피아의 항공편을 감속 운항시켰다.
- 비행 추적 사이트 FlightAware에 따르면 동부 표준시 수요일 오후 9시 10분 현재 미국 항공편 4,800여 편이 지연되었다.

CNBC 기사

CNN Business: Manhattan rents up 10% from a year ago 맨해튼 주거 임대료 전년 대비 10% 인상

- 맨해튼 임대료가 5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다. 이는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지만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는 3개월 연속으로 상승하여 5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 5월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 중간값은 4,395불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4월 임대료(4,241불)보다 3.6% 상승한 수치이다. 미국 5월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5.379불이었다.
- 1베드룸 아파트 임대료 중간값은 4,275불로 전년 대비 7%, 2베드룸은 5,400불로 전년 대비 8%, 스튜디오는 3,200불로 전년 대비 7.6% 상승했다.

CNN Business 기사

CNBC: New York overtakes Hong Kong as the most expensive city in the world for expats, new survey shows 뉴욕 “외국인 생활비 가장 비싼 도시 1위”

- 뉴욕이 전 세계에서 외국인에게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1위를 차지했다. 작년까지는 4년 연속 홍콩이 1위를 차지 했었다.
- ECA International의 조사는 일상 상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식료품, 대중교통, 가정용품 등이 포함되었다.
- 이 연구는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비 수당 계산을 돕는 곳을 목표로 한다고 ECA International이 밝혔다.
- 아시아에서 외국인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는 차례로 홍콩, 싱가포르, 서울, 도쿄, 상하이, 광저우, 선전, 베이징 순이다.

CNBC 기사

[반도체]

CNBC: U.S.-China chip war could hurt South Korea's tech giants — but not for long, Fitch says Fitch, “미중 칩전쟁, 한국 대형 기술 기업에 타격 길지 않을 듯”

- Fitch Ratings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은 중국이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보고서는 “한국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회사의 확대 투자와 기술적 업그레이드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큰 공급차질은 없을 것”이라

고 전망했다.

-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 판매를 금지함에 따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중국 내 칩 가격 상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CNBC 기사

[서부 항만]

CNBC: Vessel buildup grows at West Coast ports as maritime supply chain begins to break, echoing Covid chaos 미 서해안 항구에 정박한 선박 늘고 있다

- LAn항과 Long Beach항에 정박 중인 선박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서부 해안 항만 터미널의 노동력 부족이 트럭과 철도, 해상 운송업체 등 공급망 운영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 이번주 수요일 Los Angeles항구에서는 6척 지연되었고, Long Beach항구에서는 2척의 선박이 도착 후 바로 정박 하여 항만 운영을 할 수 없었다.
- MarineTraffic에 따르면 정박 문제가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 2개월 반 동안 LA 항의 평균 정박 대기 시간은 반나절에서 하루 사이였다. 선박은 LA APL 터미널에서 최대 9일 동안 정박 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Google to crack down on office attendance, asks remote workers to reconsider Google “사무실 출석 단속, 원격 근무자에 재고 요청”

- 구글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
- 구글은 수요일 하이브리드 근무 정책을 업데이트 했다. 이는 사무실 출근을 추적 확인하고, 예정된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과 대면, 직원 성과 평가에 출근율 포함 등이 명시되어 있다.
- 구글 최고 인사 책임자인 Fiona Cicconi는 수요일 직원들에게 “직접 모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사무실 출근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 했다.

CNBC 기사

Economist: Generative AI could radically alter the practice of law 생성 AI, 법률 관행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 Goldman Sachs에 따르면 법률 업무의 44%는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사무 및 행정 지원을 제외한 조사 대상 직종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문서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이 작업은 이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 변호사들은 실사, 연구,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 AI를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텍스트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추출형' 과 '생성' AI에 의존하는 편이다.
- AI는 세 가지 측면에서 법률 관행을 바꿀 수 있다. 1) 대형 로펌의 인력 우위를 줄일 수 있다. 2) 기업의 수익 창출 방식을 바꿀 수 있다. 3) 변호사의 수와 근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

The Economist 기사

TechCrunch: LinkedIn is the next social network to offer AI-powered tools for ad copies

LinkedIn, 광고 문구 작성을 위한 AI 도구 제공

- LinkedIn은 다양한 광고 문구를 제안하는 자체 AI도구를 도입했다.
- 이 도구는 LinkedIn 페이지와 목표, 타겟팅 기준, 대상 등 마케터가 설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광고 텍스트를 제안한다.
- 이 기능은 현재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미국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향후 몇 달 내로 새로운 기능과 더 많은 언어 지원을 추가하여 여러 지역에 출시할 예정이다.

TechCrunch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백악관 경제학자 "급격한 금리 인상, 은행권에 부정적 영향"

백악관 선임 경제학자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은행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멤버인 헤더 부세이는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은행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부세이의 발언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큰 이틀 일정의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시작된 날 나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